

수시 이월인원 변수...정시 경쟁률 높아질 듯

2021학년도 대입정시 원서 접수

7일부터 전국 대학들이 일제히 대입 정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대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자 증가, 수험생 감소 등 변수가 많아 수험생들의 '눈치 싸움' 역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지난 5일 끝난 대입 수시전형에서 이월되는 미충원 인원을도 잘 살펴야 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들은 다음날부터 실시하는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시 미충원 이월인원을 확정했다.

서울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발표한 한양대는 가군에서 10명, 나군에서 14명이 추가돼 총 24명을 정시에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시 선발인원도 기존 910명에서 934명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25명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다른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7일까지 추가모집 인원을 확정할 계

서울 주요대, 이월인원 추가 모집

전남대·조선대 모집 인원 늘어

광주대 491명·호남대 317명

동신대 30명 수능 성적 100%

확이다.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이 심해지면서 지역대학들은 수시에서 미등록인원이 대거 발생했다.

전남대는 이날 수시전형 정원 내 인원 294명, 정원 외 인원 80명 등 374명을 정시로 이월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은 기존 1254명에서 1628명으로 늘었다. 전년도에 비해 190여명 대폭 증가한 수치다.

가나군으로 나눠보는 조선대도 정시 선발인원을 당초 1029명에서 정원 내 인원 339명을 포함해

400여명이 늘어난 143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광주대는 가나군 총 491명을 모집한다.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은 수능 100%이며,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탐구(1과목) 10%, 한국사 5%이다. 수능 가형에는 취득 백분위 점수에 10% 가산점이 적용된다.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 등 전형별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단대 범위의 광역화 모집(입학과 동시에 원서접수 시 희망한 학부·과 배정) 단위로 선발한다.

호남대도 정시모집 나군 원서접수를 실시하고 총 40개 학과에서 317명을 수능성적 100%전형으로 선발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등 5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데, 탐구과목은 우수 1과목을 반영한다.

동신대도 7~11일 정시모집 가나군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정시 가군에서는 한의예과 20명·간호학과 10명을,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정시 다

군에선 학과별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수능 성적 80%와 학생부 성적 20%를 적용해 모집한다.

총 여섯 번 지원 기회가 있는 수시 모집과 달리 일반대 정시모집은 단 세 번으로 제한돼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지원희망 대학의 성적변형 기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수시 이월인원이 많아졌다면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므로 학생들은 이월인원 발생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모집 원서를 잘못 작성했다라든가 대입지원대행 업체에 결제만 하지 않았다면 마감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결제 후라면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대입 지원서 작성한 뒤 저장만 해두고 결제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이러한 실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0년만의 한파 30cm 눈까지...

광주·전남 8일까지 맹추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맹추위가 시작됐다.

무려 20년만의 한파와 함께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도 예상되면서 건강관리와 시설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 기압골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등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고 6일 예보했다.

6~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서부를 중심으로 30cm, 전남동부권 등 그 외 지역에도 5~20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기록물 데이터로 보관 본격화

원상대로 보관중인 400만여 건 누구든 쉽게 접근할 시스템으로 3개 단체 자료 공개 등 협력 필요

5·18 민주화운동이 기록물이 데이터로 보관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5·18기록물 전산화 통합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6월 12일 6면)에 따른 조치이다.

통합관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3개 기관(5·18민주화운동 기록물,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공개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5·18 관련 자료에 대해 누구라도 접근·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6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따르면 원상대로만 보관된 400만여 건의 기록물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며, 유관기관들의 자료와 함께 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1차 년도인 올해에는 국비 10억여 원과 시비 10억여 원이 투입, 1979~1980년 기간에 생성된 기록물 중 3개 기관의 공통된 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록물은 실물 형태로 보존서고에 보관돼 사료적 가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실이나 변형 위험에 노출되고, 열람이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록관은 보존서고 등도 확충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사료를 모으고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기록물 데이터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0년까지 수집된 5·18 관련 문서 4271권 85만 8904페이지, 흑백사진 2017컷, 사진 1733장 등의 기록물은 이듬해 5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기록관은 기록물 기증 기념 헌판 제작식과 세계기록유산에 소장하거나 등재를 추진하는 기관을 초청한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이어 등재된 기록물과

이후 수집된 기록물을 모아 기념일인 5월 25일 공개하고, 홍보영상도 제작한다. 특히 등재의 역사적 의의와 세계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국내외 석학들이 참가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비대면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전환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혹시나...취학 예정자 영상통화로 확인

대면·비대면 예비소집...광주·전남 2만8000여 명 전수조사

실종 등 아동학대 현황 파악을 위한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들의 예비소집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들의 예비소집을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6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 대상은 2014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으로 광주는 1만 3580명, 전남은 1만 4570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광주는 전년도 1만 3619명보다 39명, 전남은 전년도 1만 5070명보다 500명 각각 줄었다.

교육 당국은 실종 등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고자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들에 대해 예비소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다.

통상 예비 학부모와 아동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했지만, 올해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일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재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정 보육 아동의 경우 예비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영상통화로 아동과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줘야 한다.

학부모가 대면과 비대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각 학교와 자치단체 관계자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해당 아동 소재 파악에 나선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해 소재 불명 취학 예정자는 없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대, 교육부 공간혁신사업 선정

첨단 과학기술·예술 융·복합 공간 구축 7억 확보

광주교대가 교육부의 2021년 국립대학(교대) 공간혁신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광주교육대학교는 지난해 7월 국립대학(교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공간혁신사업에 공모해 국비 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광주교대는 공모에 앞서 공간혁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퍼실리테이터(건축설계 촉진자)를 위촉해 사용자 요구와 혁신 공간 목적에 적합한 공간을 설계했다.

이번 사업비 지원으로 광주교대는 기존 평생교

육관 1층 전실실 공간을 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공간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혁신 공간은 지능형 융·복합 교수-학습 공간(i-edutech), 메이커 스페이스 창작 공간(CreFac), 다목적 예술 공간(Multi-ArtPerform), 선영화관(SunkenMovie), 휴게공간(G-Caf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은 "이번 대학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물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주권을 보장하는 삶이 있는 학습 공간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별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